

## 독자 Q&A

본코너는 애독자들이 보내주신 당뇨병관리의 궁금증에 답변해드리는 란입니다.

**Q** ■ 저는 당뇨가 발병한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운동과 약물치료로 관리하고 있으나 요즈음은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 합병증은 없습니다. 일전에 tv에서 당뇨수술법이 나왔다고 잠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즈음 당뇨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현재 당뇨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외과적 수술법으로 비만대사수술법과 십이지장우회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만대사수술은 처음에 초고도 비만환자의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시행됐던 수술법이었으나, 수술 후 대사질환이 개선되는 것이 밝혀지면서 당뇨병 치료에 쓰이게 됐습니다. 비만대사수술 후에는 체중감소와 함께 유지는 물론 조절되지 않은 당을 호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술 가능한 대상은 18~65세의 체질량지수가 32~37kg/m<sup>2</sup> 인 고도 비만한 제 2형 당뇨병환자입니다.

반면 십이지장 우회술은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뺄 필요가 없는 정상체중 및 마른 체형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수술 후 인슐린분비와 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바뀌면서 당뇨병을 치료합니다. 대상자는 인슐린 분비능력이 있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제 2형 당뇨병환자가 적절합니다. 최근 들어 알려지기 시작한 수술법으로 앞으로 당뇨병치료를 위해 기대되어지는 치료법입니다.

외과적 수술을 통한 당뇨병 치료는 그동안 관리차원의 질병으로만 인식되어온 당뇨병을 완치 가능한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통해 꾸준히 당뇨병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혈당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자신의 당뇨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보시고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